

# 마힌드라 지배권 사실상 포기... 쌍용車, '새 주인 찾기' 가닥

올해 1분기 2000억 순손실 기록

정부, 무작정 자금지원 불가능 판단  
고용유지 관점 900억 대출만기 연장

쌍용자동차가 사실상 새 주인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의 최대 주주인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대한 지배권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정부가 무작정 국민의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쌍용차가 내놓는 자산을 매입해 유동성 자금을 확보토록 하고, 새 주인을 찾는 시점에 맞춰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쌍용차, '새 주인 찾은 뒤 정상화'에 무게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쌍용차에 대한 지원방안이 '새 주인을 찾은 후 정상화' 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앞서 마힌드라그룹이 지난 14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쌍용차의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모색 중"이라며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은 파트너십을 모색하거나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쌍용차의 매각수순을 밟는다는 뜻으로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정문

/뉴스시스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4월 마힌드라 그룹이 4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때까지는 2대주주를 하더라도 철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이번 발언은 코로나19로 본사 경영이 악화해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내부에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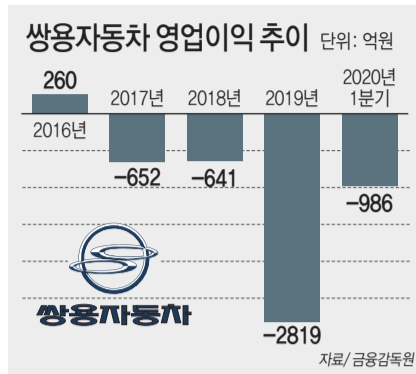
올해 쌍용차는 1분기 약 2000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쌍용차 1분기 당기 순손실은 19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1억원 늘었다. 분기 순손실 규모는 지난해 2분기 514억원에서 3분기 1079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고, 4분기 1559억원에 달했다.

때문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도 난감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기업 지원 시 최대주주의 고통부담원칙을 요구해 왔다. 통상 최대주주의 고통부담원칙은 회사 쪽이 대주주지분 감자 방안을 내놓고 채권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인데, 이미 마힌드라그룹이 손을 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추가지원에 나서기에는 명분이 없다.

## ◆정부, 대출만기연장·자산 매입 등 최소한의 지원만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라는



관점에서 다음달 돌아오는 산업은행이 빌려준 900억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다음달 6일과 19일 각각 700억원과 200억원에 해당하는 대출이 만기다. 만기 연장이 안될 경우 당장 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쌍용차가 신청하면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만기 연장을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쌍용차에 대한 1900억원 대출의 대부분은 담보가 걸려 있다"며 "일부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연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쌍용차가 내놓는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1일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2조원+α(알파) 규모 기업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했

다. 매각이 안 되는 자산을 캠코와 민간이 사들인 뒤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이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이 스스로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유동자금을 마련할 경우 채권단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쌍용차를 포함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자산을 매각해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쌍용차는 모든 비핵심자산을 매각대상으로 두고 있다. 앞서 쌍용차는 부산물류센터를 매각해 260억원을 확보하고, 서울 구로정비사업소를 1800억원에 매각한 후 재임대(Sale and lease back)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충했다. 인재개발원과 천안·영동물류센터 등을 추가로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겉으로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고용유지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언제까지 지원을 미룰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산은은 최소한의 지원을, 쌍용차는 과감한 인력구조조정을 통해 고정비지출을 낮춘 다음 확보된 여력으로 신차개발에 뛰어드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일하는 국회' 언제쯤... 與野 냉전국면 돌입

미래통합당  
상임위원장 임명강행에 '보이콧' 선언

더불어민주당  
"대승적 결단 필요한 때" 국회복귀 요구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하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강조하는 '일하는 국회'가 냉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보이콧에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에 "악재는 겹친다는 속설처럼 대한민국은 안에는 코로나19, 밖에는 북한 도발 등 내우외환에 처해있다. 내우외환 상황에서 정치 경쟁이 극단으로 향하지 않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19일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민주당은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단독 운영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회유와 압박에도 선불리 국회 복귀를 선택하지 않는 모습이다. 전날(16일) 일부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이 국회 사무처에 사임계를 제출한 이후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17일 당 외교안보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했다. 초당적인 논의를 해야 할 외교통일위와 국방위도 정략의 산물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의 폭주로 국회의 외교·안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 원 구성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초당적인 외교·안보·통일 정책 제시해야 한다. 통합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안보 위기 대응과 새로운 대북 정책 마련에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정상화됐을 때, 잘못된 원 구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원 구성이 있을 때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이후 보이콧 입장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다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통합당 내부에서도 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전통적으로 통합당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목소리를 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국가적 위기다. 국방위, 외통위 정도는 가동했으면 좋겠다"며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로 중도층은 우리 마음처럼 분노해주시지 않는다. 투쟁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폭거는 용납할 수 없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국가 안보는 그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이고 상위의 가치"라며 3대 외교·안보 상임위(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에 참여해 북한 위협에 대한 초당적 대응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포스코-현대제철, 1000억 규모 상생펀드 조성

철강업체 경영안정·고용유지 도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철강업체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철강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17일 포스코·현대제철·IBK기업은행과 함께 철강업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철강 상생협력펀드 협약'을 체결했다. 펀드는 포스코가 714억원, 현대제철이 286억원을 각각 마련해 조성됐고, 철강 중소기업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고용유지 등을 위해 사용된다.

업체별로 최대 10억원 한도로, 시중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IBK기업은행을 통해 대출해줄 예정이다. 펀드 총액의 일정 부분은 대기업과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도 철강협회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중소 철

강업체 긴급한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펀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한국철강협회가 국내 철강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라며 "통상 대기업 한곳에 의해 조성되는 상생협력펀드와 달리 대기업 2곳이 협력해 펀드 규모를 키워 지원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철강 산업 발전 유공자 29명에 대한 훈장과 표창도 수여했다. 함영철 현대제철 전무가 내진강재 전문브랜드를 개발해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손병락 포스코 명장(상무부)은 국내외 40여개 중소기업에 304건의 기술 지원을 해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한용수 기자 hys@

# 농식품부, '빅데이터전략담당관' 신설

빅데이터 기반 농식품 데이터 업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농식품 데이터 업무를 전담하는 벤처형 조직인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을 17일 신설했다고 이날 밝혔다.

벤처형 조직이란 행정수요 예측이나 성과 달성 여부는 다소 불명확하지만 달성될 경우 국민 편익이 크게 증대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행안부 2020년 벤처형 조직 혁신 아이디어에 최종 선정된 조직이다.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은 농식품부 차관 직속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 농업 빅데이터 수집·통합 등 지능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농업 데이터 품질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 데이터를 개방하는 업무, 농업 데이터 사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마련도 담당한다.

/한용수 기자